

태풍 '콩레이' 피해 청산·소안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청산면 15억·소안면 16억 피해 지방비 일부 국고 추가 지원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완도군 청산면과 소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

난 15~19일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도군 청산면과 소안면의 태풍 피해가 읍·면 선포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완도군 전체 피해액은 24억원을 넘어서 피해 우심지구로 선정됐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완도군 총 피해액은 39억9300만원(공공시설 4억2300만

원, 사유시설 35억7000만원)이고, 이 중 청산면은 15억3600만원, 소안면은 16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완도군은 전남도로부터 긴급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지원받아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예비비를 편

성해 303가구에 17억4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태풍 '솔릭'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콩레이'로 인해 잇따라 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시름이 크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원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광산구청 구금고 경쟁 결국 '전의 전쟁'

국민 64억, 농협 21억 기부 제시 국민 1금고, 광은 2금고 낙점

광주 광산구의 구금고 유치를 위해 농협과 시중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결국 '전의 전쟁'으로 결론이 났다. 지역사회기여금 등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이상 기부하겠다고 제안한 국민은행이 제 1금고에 낙점이 됐으며, 제 2금고는 광주은행이 차지했다.
광산구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5585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는 9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은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성이 있어 지난 수십년 동안 농협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제 1금고를 독점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개최된 광산구 구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2019~2021년까지 3년간 광산구 제 1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국민은행이 낙점됐다.

국민은행이 지역사회기부금으로 35억원 그리고 협력사업비로 29억4000만원 등 총 64억 4000만원을 출연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예금금리도 2.12%를 제시했다. 반면 농협은 기부금 3억원을 비롯해 협력사업비 18억 등 총 21억원의 출연금액을 제시한데 그쳤다. 예금금리도 국민은행보다 낮은 1.58%를 제시, 재량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경쟁에선 그동안 구 금고를 독점해 온 농협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반면 국민은행은 사활을 걸고 뛰어들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구 금고 선정에서 농협이 탈락하면서 일부에선 후폭풍도 불고 있다.
농협 측은 25일 오전 지역내 회원농협 조합장 10여명이 아침 일찍 구청장실을 방문, 출장중인 김삼호 청장 대신 이성수 부구청장을 만나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내가 김치명인" 열띤 경연 25일 광주 남구 인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2018광주세계김치축제'에서 김치명인들이 대통령상을 놓고 경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김치축제는 '김치로 하나되는 세상'을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김치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수익 전액 지역 환원"

광주도시공사, 민간특례 2단계 공모 제안...공익성 극대화

민간공원 특례개발 2단계사업 중 광주 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모에 참여한 광주도시공사가 25일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지구 내 비공원시설(아파트)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공원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에서 수익금 전액을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도시공사는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만이 참여한 특례개발 1단계 사업 결

과 '공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언론과 민간거버넌스의 지적이 있었다"며 "광주시가 이를 수용, 공공기관에 한하여 공영개발방식의 사업방식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가 적법하게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자신들이 모두 가져가는 민간업체와는 달리, 도시공사는 사업수익금 전액을 공원운영

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며 "이는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특히 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 "최근의 분양가 급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정은 시의회 등을 통해 통제되는 만큼, 민간사업 방식보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에는 광주도시공사를 포함해 2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11월 7~8일 이틀간 제안평가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전남도 7만7000t으로 확대

전남도는 노지채소 가격·수급 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물량을 7만7000t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만1000여t 늘어난 규모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재배농가가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할 경우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자율적으로 재배면적 조절·출하 중지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장용 무·배추는 물론 내년에 수확하는 양파·마늘과 같은 양념채소에 대해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으로 산정하는 기준가격의 80% 수준까지 보장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지사 호화판 한옥 공관시대 마감

아파트로 이사...공관 매각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호화판 논란을 불렀던 한옥 공관에서 나와 도청 인근 아파트로 관사를 옮겼다. 이로써 박준영 전 지사때 건립해 사용하던 지사 한옥 공관시대가 12년만에 마감됐다. 한옥 공관은 매각할 계획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취임 직후 밝힌 한옥 공관 폐지 약속을 3개월여만인 이날 실행했다. 김 지사가 목을 새 관사는 도청 인근 남양신도심에 155㎡형(47평형), 전세 3억3000만원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전남도는 오는 12월 공유재산심의위

원회를 열어 한옥 공관 매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매각안이 통과되면 전남도의 회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공관을 매물로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한옥 공관은 박준영 지사 시절인 2006년 10월 도청 뒤편에 건립됐다. 목조 한옥 팔각지붕 구조로 안채·사랑채·문간채 등 지사 거주공간인 어진누리와 외부 손님 숙소나 공식 회의 등에 쓰이는 수리채로 구성했다. 그러나 신축비만 34억원에 달해 호화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1년 관리비만 2억원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무소속 전남 군의원 3명 민주당 복당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장흥군의회 유상호·왕윤재 의원과 보성군의회 김경열 부의장 등 현직 지방의원 3명이 민주당에 복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5일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당 운영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최근 심사한 복당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도당 당자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최근 복당계를 제출한 탈당 당원 59명에 대해 복당 허용여부를 심사한 결과, 유상

호 장흥군의원 등 현직 지방의원 3명과 김치우(목포)씨 등 22명에 대해 복당 허용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여수) 등 27명은 해당 행위 등의 이유로 불허처분을, B씨(광양) 등 10명은 같은 이유로 보류처분 했다.
복당의 경우 민주당은 당규(제11조)에 따라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전남도당은 상무위 권한을 운영위에 위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안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66주년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70~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천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